2016. 10.

<2016. 9. 22 ~ 9. 27, 일본 홋카이도, 오키나와>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4

1 연수목적
2 연수현황
3 연수내용
4 연수일정
5 연수자 명단

Ⅱ. 연수국가(지역) 일반현황 ---------- 5~19

1 방문지도 및 이동경로
2 일본현황
3 홋카이도 현황
4 오키나와 현황

Ⅲ.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 20~64

1 삿포로 중앙도매시장
2 홋카이도 의회
3 야마모토 관광수농원
4 팜 토미타
5 팜 키토라
6 미치노에키 쿄다
7 우미부도우 양식장

Ⅳ. 연수후기 ---------- 65~69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 발생 및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농업 소득의 불안정 등 농촌 및 농산업 침체

○ 농업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침체된 농촌지역의 농업 생산 의욕과 투자 의욕 고양이 필요하며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절실

○ 일본은 농촌 관광이 1970년대부터 확산되어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으로 불리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전략으로 추진

○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 및 관광과 체험을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고도화시킨 일본 지자체 및 농업단체의 체험관광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전북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연수현황

○ 기　　간 : 2016. 9. 22.(목) ~ 9. 27(화) / 5박 6일
○ 연 수 국 : 일본 홋카이도, 오키나와
○ 연수대상 : 13명
- 의　　원 : 의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7명
- 직　　원 : 전문위원실 직원 5명

3 연수내용

○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고 농촌관광 및 6차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진 원동력, 정책지원, 자금 지원 시스템, 유통망 조사

- 삿포로 중앙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일본 농산물의 상품화 동향파악 및 일본 도매시장 품목별 주요 상품분석, 거래 방식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
- 쿄다 미치노에키 : 지역별 도로 휴게소에 지역 특색에 맞게 현지 농산물 직매장, 문화체험 시설 등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주민 연대 강화

○ 일본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모델인 체험 관광농원을 우리 도에 응용, 도입하기 위해 관련 농원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 야마모토 관광수농원 : 북해도에서 재배가능한 모든 과수를 유기비료만을 사용하여 재배하며 직판장 운영, 온라인 주문판매, 체험서비스, 가공 판매 등 생산부터 판매, 체험까지 운영방식을 다각화
- 도미타팜 : 라벤다 관광농원으로 재배에서 직접 수확한 라벤더를 이용하여 상품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농촌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에코투어리즘)으로 발전시킨 성공사례
- 팜 키토라 :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유기농 쌀생산, 무농약 야채 등 친환경 재배 농법 및 직접 판매를 통해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농업을 추구하고, 소비자에게 생산지 직접 판매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보급하기 위한 완전 순환농법 실천

- 우미부도우(바다포도) 양식장 : 오키나와 진미로 오키나와 전역에서 양식되며 포도모양 해조류로 모양이나 식감은 캐비어를 닮아 '그린 캐비어'라고 불려 오키나와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효자 특산물

○ 우리 도의회와 일본 지자체 의회 간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선진정보 교류 및 행정적 협력 확대

- 북해도(홋카이도)의회 : 홋카이도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성장시킨 홋카이도 지자체 및 의회의 역할과 지원정책 등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 강화

4 국외연수 일정

일 자	방문지역	시간	일 정	비고
제1일 9.22(목)	한국→일본 (전주→인천→치토세)	08:30 14:20 17:00	○ 전북도의회 출발 ○ 인천공항 출국 ○ 치토세 국제공항 도착 -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제2일 9.23(금)	삿포로	08:30 10:30 14:30	○ 삿포로 도매시장 견학 ○ 북해도의회 방문 ○ 요이치 야마모토 관광수농원 견학	
제3일 9.24(토)	삿포로	10:30 15:00	○ 도미타팜 견학 ○ 팜키토라 농장 견학	
제4일 9.25(일)	오키나와 (삿포로→오키나와)	14:25	○ 신치토세→오키나와공항 도착	
제5일 9.26(월)	오키나와	14:30	○ 미치노에키 쿄다 견학	
제6일 9.27(화)	일본→한국 (오키나와 인천 전주)	09:30 13:00 15:20 19:00	○ 우미부도우(바다포도) 양식장 견학 ○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후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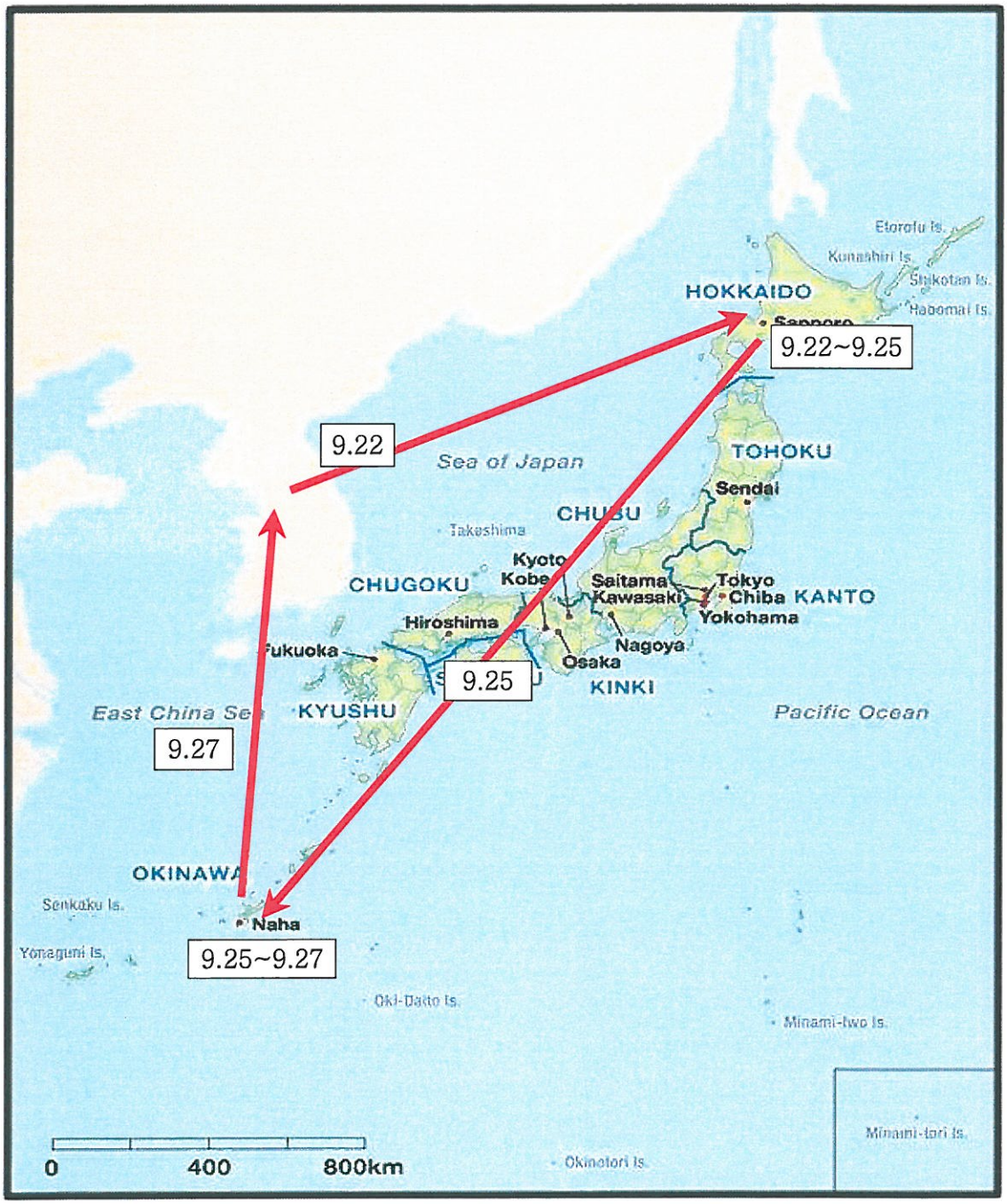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성 별	비 고)
계			13명	남 11, 여2	
도의원 (8명)	의장(1명)	의장	황 현 (HWANG HYEON)	남	
	농산업경제 위원회 (7명)	위원장	이 학 수 (LEE HAKSOO)	〃	
		부위원장	강 용 구 (KANG YONGGU)	〃	
		부위원장	양 용 호 (YANG YONG HO)	〃	
		위 원	김 현 철 (KIM HYUNCHUL)	〃	
		〃	백 경 태 (BAIK KYONGTAE)	〃	
		〃	이 현 숙 (LEE HYUN SUK)	여	
		〃	정 진 세 (JEONG JINSE)	남	
위원회보좌 (3명)	농산업경제 전문위원실 (3명)	전문위원	정 재 철 (CHUNG JAECHEUL)	〃	
		직 원	정 만 춘 (JEONG MANCHUN)	〃	
		〃	박 민 군 (PARK MINGUN)	〃	
정책연구 (2명)	정책연구3팀 (2명)	정책연구 3팀장	윤 재 준 (YOON JAE JUN)	남	
		팀원	마 정 숙 (MA JEONGSUK)	여	

II 연수국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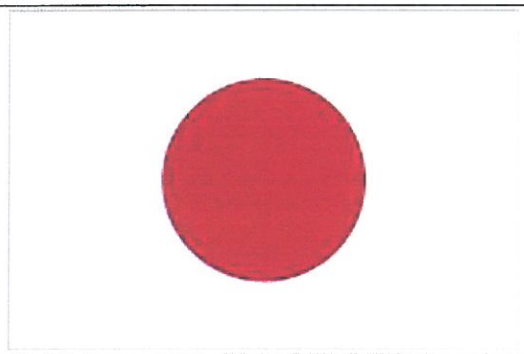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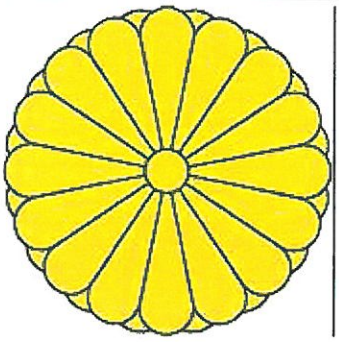
1 방문국가 지도 및 이동경로

○ 한국→ 홋카이도(4일/3박) → 오키나와(3일/2박)



2 일 본(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국가개황

	
국 기(히노마루)	국 장

○ 명 칭 : 일본국(日本國, 日本國 にほんこく, 니혼코쿠)

○ 수 도 : 도 쿄

○ 성 립 : 1947년 제정·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성립

○ 면 적 : 377,944km^2

	섬명	경도	위도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동경 153도 59분11초	북위 24도 16 분 59초
최서단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	동경 122도 56 분 01초	북위 24 도 26 분 58초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동경 136도 04 분 11 초	북위 20 도 25 분 31초
최북단	에토로후토(択捉島)	동경 148도 45 분 14 초	북위 45 도 33 분 18초

○ 정치현황 :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 천황 : 아키히토
- 내각총리대신 : 아베 신조

○ 인 구 : 126,832,000명(2015년 기준)

○ GDP(2015년 기준)

- 전체 : $4조 8,430억 (4위)
- 일인당 : $38,215 (22위)

○ 언 어 : 일본어

- 문자는 한자와 가나를 기본으로 하며 이외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혼용. 류큐어는 오키나와에서만 한정되어 사용

○ 화 폐 : 엔(JPY, ¥) (JPY)

▣ 역사

○ 일본의 역사는 역사학 상에서의 시대 구분은 일반적으로 고대(아스카 시대 및 그 이전 ~ 헤이안 시대), 중세(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센고쿠 시대), 근세(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 근현대(메이지 시대·다이쇼 시대·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로 나눔

○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센고쿠 다이묘 세력에 의한 지방 자치 체제의 형성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가 16세기 후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의 주도 하에 통일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루러 근세로 이행.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뒤를 이은 근세의 에도 막부는 바쿠한(幕藩) 체제 밑에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을 고정하고, 기독교 금지를 구실로 쇄국(鎖國)을 행하고, 후에는 유교적 교화(敎化)도 이용하면서 전국 지배를 강화. 19세기 중엽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에도 막부는 붕괴, 근대로 이행.

○ 에도 막부의 붕괴 이후 메이지 유신을 맞이한 일본은 근대 국가의 건설을 추진. 인접국들과의 국경 확장을 행하여 가라후토 지역을 러시아 제국에 양도하는 대신 지시마 열도(쿠릴 열도) 전역을 일본령으로 하였고, 난세이 제도와 류큐국은 류큐 처분을 통해 실효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여 지금의 일본 영토 범위 확정. 1885년 내각 제도가 성립하고, 1889년에는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여 이듬해인 1890년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해 제국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명목 상의 입헌 국가가 되었음. 20세기 초반까지 제국주의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조선(대한제국), 타이완, 미나미카라후토(사할린 섬 남부)를 강제 합병하고 주변국 침략. 1930년대 군부의 정치적 대두와 함께 무리

한 주변국 침략을 감행하면서 주변국의 저항과 미국 등 기존 열강과의 충돌을 통해 일어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

○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인해 주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합군의 지배하에서 강제 병합, 불법으로 획득한 영토를 주변국에 돌려주고, 국가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현재의 일본국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고, 1972년까지 아마미 제도, 오키나와 현에서의 영토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음.

▣ 정치

○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음.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일본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으나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 원수로 대우받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천황은 아키히토이며 1989년 즉위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하고,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짐.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음.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고, 2012년 12월 26일부터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출범.

○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짐. 내각은 내각 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짐.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을 비롯한 하급 입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 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 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음.

▣ 경제

○ 일본의 전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파괴를 당하고 남은 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발전함. 일본은 1952년 점령군이 퇴각할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비가 미국의 약 1/5밖에 안되는 후진국이었으나 그 후 20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1968년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됨.

○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1960년대의 연간 수출은 평균 18.4%씩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1970년 후반부터 컴퓨터와 반도체, 그 외 기술 및 정보 집약 산업들이 고도 성장 시대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발맞추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1988년, 1971년에 비해서 3배나 오른 달러 당 120엔으로 급등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였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음.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주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은행들은 자금 방출구를 부동산 개발에서 찾음. 반면, 기업들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지가가 2배로 상승하였고 도쿄 닛케이 주가 지수는 180%가 증가함. 1989년 5월, 정부는 토지와 같은 자산 가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화하였으나 이자율의 증가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1990년대 말, 도쿄 주식 시장은 38%나 감소하여 3,000조 엔(미화 20조 700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고 지가도 투기의 절정에서 폭락하여 '거품 경제'의 '붕괴'를 가져옴

○ 고용 급여와 임금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같이 감소함. 1998년의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2년 초에 바닥을 치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기로 접어들어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추세가 이어짐. 10년 이상을 방황한 끝에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인 후유증들이 극복되고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02년에 8% 이상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까지 감소함. 현재는, 지식과 기술 집약형 생산 제조 공정을 전문화하여 일본의 제조업은 지식 및 기술 집약형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현대 학교의 개념이 일본에 첫 소개된 것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임. 1947년 이후, 일본의 의무 교육기간은 만6세부터 만15세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이며 의무 교육을 마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2005년 기준 대략 75.9%의 고등학생이 대학교, 단기 전문 대학교를 비롯한 상위 학교로 진학함.

○ 일본의 교육은 고등 교육기관으로의 입학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체계이며 따라서 선호하는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 중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이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학생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세계 6위를 차지함

○ 일본의 교육 체계는 6-3-3-4제로,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음. 만 6~7세부터는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인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됨. 사설 학원인 주쿠(塾) 등의 보충학습, 심화학습 등을 비롯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학교에서의 수업이 경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학교를

비롯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도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안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 프리스쿨과 같은 교육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

○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인 '대학'과 2년제 대학인 단기 대학, 전문학교가 있으며 4년제 일반 대학은 학부제, 2년제 단기 대학은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1949년 1월, 주일본 한국대표부가 발족하고, 1962년 11월 재일동포 서갑호가 현 대사관 토지 및 건물을 한국정부에 기증하였음. 1965년 12월 주일본 한국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하였고, 1979년 9월 현 대사관 청사 및 관저를 신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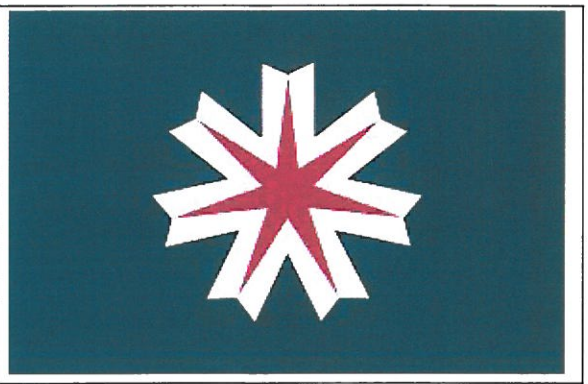
○ 1965년에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졌음. 하지만 양국의 협력 관계가 날로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영토권 문제와 제주도 남서일대의 대륙붕에 있어 석유자원의 소유권 및 개발권 문제 등 분쟁의 요소가 남아 있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또한 민감한 문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제국의 전몰자와 전범들을 안치한 신사인데,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음.

3 홋카이도

▣ 지역개황



지 도



도 기

○ 명　　칭 : 한자 표기(北海道), 가나표기(ほっかいどう)

○ 면　　적 : 83,453.57 km^2

○ 경 위 도 : 동경 141°20′50″, 북위 43°3′53″

○ 행정구분 : 34시 129정 16촌

○ 인　　구 : 5,381,711명(2016년 6월 30일)

○ 지역상징물

- 꽃 : 해당화(ハマナス),
- 나무 : 가문비나무(エゾマツ)
- 새 : 두루미(タンチョウ)

○ 도지사(道知事) : 다카하시 하루미

○ 주도 : 삿포로시[札幌市]

○ 기후 : 북위 41도~45도에 위치하여 서안 해양성 기후나 온난 습윤 기후를 볼 수 있는 도난 지방의 일부 연안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역이 냉대 습윤 기후와 타이가 기후와 같이 매우 한랭한 기후가 나타남.

○ 지리 : 일본 열도에선 혼슈 다음으로 2번째, 세계에선 21번째로 큰 섬이며 남쪽의 혼슈(아오모리 현)와는 쓰가루 해협으로 갈라져 있으나 세이칸 터널을 통해 혼슈와 연결되어 있음.

▣ 지역

○ 홋카이도에는 14개 진흥국이 있으며 각 진흥국은 도청의 지방 행정 기관으로 그 관할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지청의 관할 지역은 군 지역에만 해당하며 시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규칙 등에 따라 시 지역에서도 지청의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음.

○ 도청이 있는 삿포로 시에도 이시카리 진흥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청은 각 진흥국과의 사무 조정이나 의회와의 조율, 행정 방침의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역사

○ 본래 아이누족(族)이 살고 있던 미개지로 에조치[蝦夷地]라고 불렀으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음. 러시아 영토와 가장 가까운 지시마[千島]열도 가운데 남쪽의 구나시리·에토로프·시코탄·하보마이 제도는 홋카이도 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로 귀속됨.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해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 징용하였음.

▣ 경제

○ 홋카이도 내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이 3.3%, 2차 산업이 22.4%, 3차 산업이 76.7%이며(2000년) 일본 전체와 비교해서 1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율이 높고, 2차 산업 중 특히 제조업의 비율이 작음.

○ 농업이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으며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양파, 호박, 메밀, 우유, 소고기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임. 홋카이도의 삼림은 또한 일본 삼림의 22%를 차지해 임업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도 홋카이도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전국 1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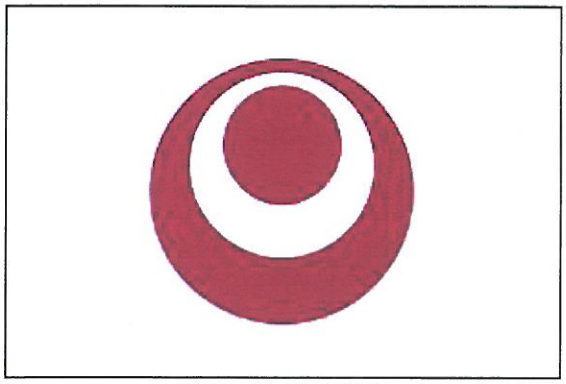
○ 관광업은 홋카이도의 중요한 산업으로 특히 시원한 여름 덕분에 본토의 더위와 습기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겨울에는 스키를 포함한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삿포로에서는 1972년 동계 올림픽이 열린 바 있음.

4 오키나와 현

▣ 지역개황



지 도



현 기

○ 명　　칭 : 오키나와 (일본어: おきなわ)

○ 주　　도 : 나하시(那覇市)

○ 면　　적 : 2,276.72 ㎢

○ 인　　구 : 1,419천명(2014년)

○ 경 위 도 : 동경 127°68′11″, 북위 26°21′16″

○ 행정구분 : 11시 10정 20촌

○ 주요상징물

- 꽃 : 데이고(デイゴ)
- 나무 : 류큐마쓰(琉球松)
- 새 : 오키나와딱따구리(ノグチゲラ)

○ 지 리 : 오키나와 지형의 특색은 여러 섬 주위에 발달한 해안 단구와 류큐 석회암(琉球石灰岩)의 대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해안에서 산호초가 발달하여 있음

○ 위 치 : 일본의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남부의 류큐제도[琉球諸島]에 속하는 섬들을 포함하는 현으로 오키나와 섬이 오키나와 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임

▣ 지역특징

○ 오키나와 섬(沖縄島) 또는 오키나와 본도(沖縄本島)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의 사이에 위치하는 난세이 제도 최대의 섬이자, 오키나와 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면적은 1,206.93 km^2이고, 일본의 주요 4개 섬을 제외한 면적이 가장 넓은 섬으로 오키나와 현의 45개의 시정촌 중 현청 소재지인 나하 시를 포함한 30개의 시정촌이 있고, 오키나와 현의 인구 약 135만 명 중 약 120만 명이 오키나와 섬에 집중되어 있음.

○ 오키나와에는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와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MCAS Futenma), 요미탄 보조비행장, 화이트 비치 훈련장, 나하 군항, 마키미나토 보급기지, 헤노코 탄약창기지, 북부 훈련장, 카데나 탄약창기지가 있으며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5%가 들어서 있음.

▣ 경제

○ 2003년의 오키나와 현내 총생산은 약 3조 5,755억 엔이고 한 명당 현민 소득은 일본 최하위로 일본 평균의 70% 수준이며 실업률도 높은 편임. 일본 본토에서 공수해야 하는 식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은 수송비로 인해 본토에 비해 고가임.

○ 전통, 역사, 자연을 살린 관광 산업이 번성하고 수학여행의 수요도 많아서 관광객 수는 연간 715만~720만명(일본경제신문, 2015.3.21.)에 이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을 보면 중화민국(75%), 미국(11%), 대한민국(4%), 홍콩(2%), 중화인민공화국(2%) 순임. 일본에서 유일하게 열대, 아열대성 기후를 살린 망고, 파파야 등의 열대 과일이나 사탕수수 등의 농사가 번성함.

▣ 역사

○ 17세기까지 류큐(琉球)왕국으로 불렸던 오키나와는 중세 조선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간의 무역중계지로서 번영을 누리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온 독립 국가였음. 그러나 일본은 1609년 사쓰마(薩摩)를 시켜 류큐를 정복, 완전히 복속시켰고 1879년 메이지(明治) 정부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편입시킴.

○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진 곳으로 1945년 4월 1일 미군이 상륙, 3개월간 계속된 전투로 민간인들까지 전투에 말려들어 20여 만 명의 사망자 중 주민이 9만 4000명에 이를 정도였음. 이 때 부터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27년간 군정통치를 받음.

○ 1950년 12월 '류우큐우 열도 민간정부에 관한 명령'을 통해 미국의 신탁통치 관할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오키나와 주민의 일본으로의 복귀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어 1960년 오키나와현 일본복귀협의회가 결성되었음. 1969년 11월 당시 미국의 R.M.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佐藤) 총리 간 회의에서 1972년에 반환을 약속한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971년 6월 17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조인되고, 1972년 5월 15일에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26년 만에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복귀함.

▣ 문화

○ 류큐 왕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루손 (현재의 필리핀)과 샤암(현재의 태국)등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며, 그 이름이 유럽인에게도 「레키오스」 또는 「고레스 사

람」으로 알려져 있었음. 류큐의 국왕이 바뀔 때마다 파견되는 중국 황제의 사신 「책봉사」를 대접하기 위해 류큐 왕국에서는 예능 · 공예 · 요리 등 다양한 문화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 1591년 「사츠마항 (현재의 가고시마) 」의 침공이 시작되고, 1606년에 류큐 왕국은 사쓰마에 지배됨. 류큐는 일본에의 복속 의례로 에도 상행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과의 조공무역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1875년 메이지 정부가 류큐 왕국을 폐지할 것과 청나라와의 책봉 · 조공 관계를 폐지할 것, 정치 제도를 일본의 것에 준 할 것 등을 명령하고 1879년 「오키나와현」을 설치 함.

○ 1879년에 오키나와현이 설치되면서 일본 중앙 정부에서 첫 주지사 「나베시마 나오요시」가 임명됨. 그 후 여기도 차츰 근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반 주민들을 전쟁에 말려들게 한 치열한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인적, 문화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음.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오키나와는 미국의 통치 하에 들어가 1972년 5월 15일에 일본에 반환되기까지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일본 본토와는 다른 역사를 쓰게 됨.

II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1 삿포로 중앙도매시장(札幌市中央卸売市場)

▣ 방문목적

○ 도매시장에 반입, 유통되는 일본 농산물의 현황과 도매시장 품목별 주요상품 분석, 거래방식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으로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자료 수집

▣ 방문개요

○ 일 시 : 9. 23(금) 오전 08:30
○ 안내자 : 총무계 高橋 美穗(TAKAHASHI MIHO, 타카하시 미호)
○ 주 소 : 北海道札幌市中央區北12條西20丁目2番1号
(홋카이도 삿포로시 츄오구 키타12죠 니시20쪼메 2반1고)
○ 홈페이지 : http://www.sapporo-market.gr.jp/
○ 주요내용
- 도매시장 시설 운영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등 간담회
- 도매시장 내·외부 현장 견학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 방문기관 주요 내용

【도매시장 주요현황】



○ 부지면적 : 129,748㎡ / 주요 시설 연면적 :135,058㎡

○ 취급 품목

청과부	야채, 과일 및 이러한 것들의 가공품 및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신선 식료품 등
수산물부	신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및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신선 식료품 등

○ 주요시설의 구조 및 면적

종 류	구 조	건축면적(㎡)	명면적(㎡)
①수산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 4층	19,022	39,411
②청과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지상 3층	23,356	36,885
③관리센터	철골조 3층	380	903
④수산 보냉 배송센터	철근 콘크리트조 3층	1,783	4,954
⑤청과물 공동배송센터	철골조 단층 건물(J R고가 아래)	310	301
⑥청과물 정온(냉)창고	철골조 단층 건물(J R고가 아래)	1,258	1,258
⑦청과물 정온(냉)창고	철골조 단층 건물(J R고가 아래)	709	709
⑧청과 매입 보관창고	철골조 단층 건물(J R고가 아래)	1,082	1,167
⑨청과 입하 처리소	철골조 단층 건물	532	503
⑩폐기물 집적소	철골조 단층 건물	1,237	1,285
⑪센터 야드	주차 가능 대수 약 520대	17,922	15,912
⑫입체 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 약 1,000대	7,245	35,205

○ 시장 관계 사업자(2015년 12월 현재)

업 종 명	구 분		업자 수	보증금	
				도매 금액(소비세 포함)	보증금(만 엔)
도매업자	청과부		2社	300억 엔 미만	500
				300억 엔 이상 600억 엔 미만	1,000
				600언 엔 이상	1,500
	수산물부		2社	300억 엔 미만	500
				300억 엔 이상 600억 엔 미만	1,000
				600언 엔 이상	1,500
중도매업자	청과부		26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2배	
	수산물부		29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2배	
매매참가자	청과부		445人		-
	수산물부		68人		-
매출買出인	청과부		74人		-
	수산물부		285人		-
관련 사업자	제3종	정산업	2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제3종	운송운반업	5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통운 화물취급업	4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기타 영업	1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제3종	음식점업	5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이용업	1社	시설 사용료 월액의 3배	
		물품판매업	5社	그 도・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기타 영업	4社	`그 도・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도매시장 기능 및 종류】

○ 일본 도매시장 주요기능

1. 집하 및 분산 :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상품을 집하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품목과 물량을 집하 및 분산
2. 가격형성 : 수급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투명한 가격을 형성
3. 대금결제 : 판매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제 및 거래자 전달
4. 정보의 수신 및 발신 : 수급에 관계된 정보를 수집하고 산지 및 소비지에 전달

○ 도매시장 종류와 요건

구분	요건	개설자 허가
중앙 도매시장	도도부현,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이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도매시장 (법 제 2조 제 3항)	(1)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농림수산대신 허가) (2) 도매업자 : 주식회사 등(농림수산대신 허가) (3) 중도매 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 (4) 관련사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 (5) 매매참가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승인)
지방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이외 도매시장에서 도매장의 면적이 일정규모 (청과시장 330㎡, 수산 200㎡, 산지시장은 330㎡, 식육 150㎡, 화훼 200㎡)이상을 대상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 개설 된 것(법제2조 4항)	(1)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협, 어협 등(도도부현 지사 허가) (2) 도매업자 : 개설자의 경우와 동일 (도도부현지사 승인) (3) 도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 (필요한 부분은 도도부현 지사가 규정) (4) 도매참가자 : 도매업자의 경우와 동일

○ 도매시장 유통과정



【도매시장에 대한 일본정부 정책】

○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지 위주로 재편되어 생산자 도매시장이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생산자 가공 소매업자와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도매업자의 연계체계가 강화됨.

○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요구를 수용하여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도매업자의 제3자 판매와 중도매업자의 직접 집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함. 또한 도매 법인 및 중도매업자의 시장외 판매활동에 관한 규제도 완화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도매시장 시설정비 대책, 도매시장 기능강화 사업, 도매시장시설 재해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법인, 중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근대화 시설, 기능고도화 시설과 관련된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중앙 및 지방시장, 도매업자의 합병 및 통합, 재무기준에 따른 관리 등을 실시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강화하고 도매시장 도매인의 재무지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함.

▣ 주요 질의 답변

○ 도매시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직접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 시설 구축은 지자체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는 도매시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체운영하고 있음. 단, 지자체 정부에 정기적으로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지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시장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영업이 중지되기도 함.

○ 도매업자 또는 각종 유통사업 종사자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종 별	사용료 계산의 단위	사용료 율 또는 금액
도매업자 시장사용료	1개월 당 도매 금액(소비세 및 지방세 포함)의 월액	1,000분의 2.5
도매업자 매장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122
도매업자 하차장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785 円
도매업자 저온 매장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122 円
중도매업자 시장사용료	1개월 당 중도매업자가 업무규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물품 판매금액의 월액	1,000분의 2.5
중도매업자 매장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122 円
중도매업자 하차장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785 円
중도매업자 중 2층 사무소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697 円
제1종 관련사업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122 円
제2종 관련사업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683 円
제3종 관련사업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2,244 円
사무소 사용료 A	1개월 1평방미터 당	¥1,122 円
사무소 사용료 B	1개월 1평방미터 당	¥2,244 円
보관 창고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785 円
공지(空地) 사용료 A	1개월 1평방미터 당	¥500 円
공지(空地) 사용료 B	1개월 1평방미터 당	¥1,000 円
수산 보냉센터 사용료(6월~9월)	1개월 1동 당	¥3,090,900 円
수산 보냉센터 사용료 (1월~5월까지 및 10월~12월)	1개월 1동 당	¥2,850,200 円
고가 아래 정온창고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1,090 円
고가 아래 일반창고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860 円
고가 아래 서고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510 円
고가 아래 배송센터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860 円
입체 주차장 사용료	1개월 1대 당	¥8,500 円
조리 실습실 사용료	오전 또는 오후 1회 당	¥7,200 円
기타 시설 사용료	1개월 1평방미터 당	¥2,244 円

○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인한 농수산물 유통검사가 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인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농축수산물들은 생산지 지자체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 잠정 규제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는, 정부에 의해 출하제한을 시키고 있으며, 오염지와 관계되는 현에서도 출하 자숙을 요청하고 있음. 출하제한이 되는 대상지역과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함. 우리 시장에는 출하 제한이 되는 대상 품목은 입하하고 있지 않음

○ 현재 도매 시장의 운영상황은 어떠하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최근 직거래 등이 확산되면서 도매시장의 경유율 저하로 시장과 관계된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점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서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도매시장을 확립하고 유통효율화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기한다며 경영상 어려움, 수익악화는 개선 될 것으로 예측됨

▣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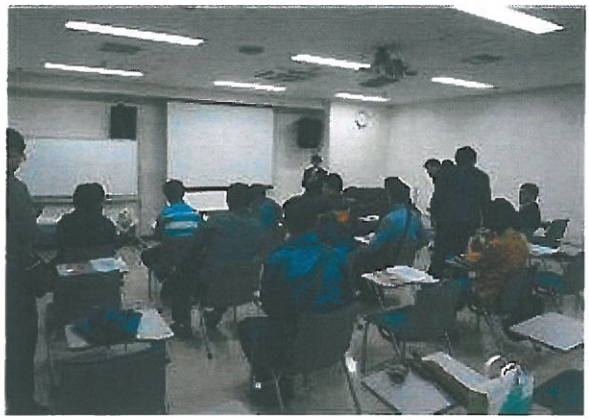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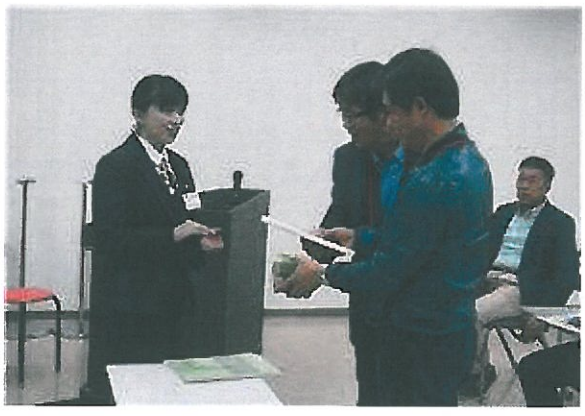
○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건강한 유통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산지 위주의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산지유통조직 육성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비지 유통경로인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을 구분하여 정비되어야 하는데 중앙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바탕으로 가격발견 방식의 다양화, 저장 및 가공분야의 물류시설 확충, 하역체계의 개선,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 농산물 취급량이 낮은 지방도매시장은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 로컬푸드를 주체로 육성하여 유통단계 축소,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도매시장은 소비자 구매패턴의 다양화 및 외식소비 확대, 소매 유통구조 변화, 디지털 전자상거래 등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산지조직화 및 규모화, 지역 거점 도매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산지 유통센터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농수산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방안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기술 등 우수 선진기술의 도입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임

▣ 방문기관 사진

	
시장 현황 청취	홍보 동영상 시청
	
내부 견학	내부 견학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2 홋카이도 의회(北海道 議会)

▣ 방문목적

○ 홋카이도가 지역의 환경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홋카이도 의회의 역할과 지원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지자체 발전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 강화

▣ 방문개요

○ 일　시 : 9. 23(금) 오전 10:30

○ 안내자 : 의회사무국 주임, 鳴海 夏葉(NARUMI KAYU, 나루미 카유)

○ 주　소 : 札幌市中央北 3 西 6 丁目

○ 홈페이지 : http://www.gikai.pref.hokkaido.lg.jp/

○ 주요내용

- 일본 홋카이도 농산업 및 산업별 현황, 정책지원 자료 수집
- 의회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의회 벤치마킹
- 지자체 의회 간 선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 강화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홋카이도 의회 현황 】



○ 도의회 의원 선거구 : 각 진흥국 · 종합 진흥국 소관 구역(이시카리 진흥국은 이시카리시와 합병, 오츠크 종합 진흥국은 동서로 구분) 15, 시 22, 구 (삿포로시) 10을 합하여 47 선거구이며 의원 정원은 101명임.

○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는 연간 4회 열려 도정의 방침, 예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 결정함

○ 의회 구성

- 의회 운영 위원회 : 각 회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회의 규칙에 관한 것 등을 협의 · 심사함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상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로 본회의에서 위촉된 의안이나 청원 · 진정 등을 심사 · 조사함. 도의 업무를 부와 국 단위로 나누어서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됨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심사 ·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되고, 조사가 종료하면 위원회는 없어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총무 위원회	12명	산탄지역진흥 · 에너지문제 조사 특별위원회	16명
종합 정책위원회	11명	북방영토 대책 특별위원회	16명
환경생활 위원회	11명	신칸센 · 종합교통체계 대책 특별위원회	16명
보건복지 위원회	11명	인구감소문제 · 지방분권개혁 조사 특별위원회	16명
경제 위원회	11명	저 출산 ·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16명
농정 위원회	11명	먹거리와 관광 대책 특별위원회	16명
수산임업 위원회	11명	예산 특별위원회	
건설 위원회	11명	결산 특별위원회	
문교 위원회	12명	※인원은 각 위원회의 정원	

○ 상임위원회

위원회명	소관 업무 사항
총 무	도 행정 대책 · 도행정 종합 조정 · 공안행정
종합정책	중요대책의 총체적인 기획 · 조정 · 지역 진흥 대책
	시 · 정 · 촌(市 · 町 · 村) 등의 행정 대책
환경생활	환경 보전 · 도민 생활 향상 및 안정
보건복지	보건 위생 · 사회복지 및 사회 보장
경 제	상업, 광공업 및 관광 진흥 · 고용 안정 및 노동복지대책
	공영기업 운영
농업정책	농업 · 농업 기반 정비 · 농지 관계 조정
수산임업	수산업 진흥 · 임업기능 유지 및 증진, 수산업 및 임업 증진
건 설	도로, 하천, 항만 등 토목 사업 · 주택 건축 · 도시 정비
문화교육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충실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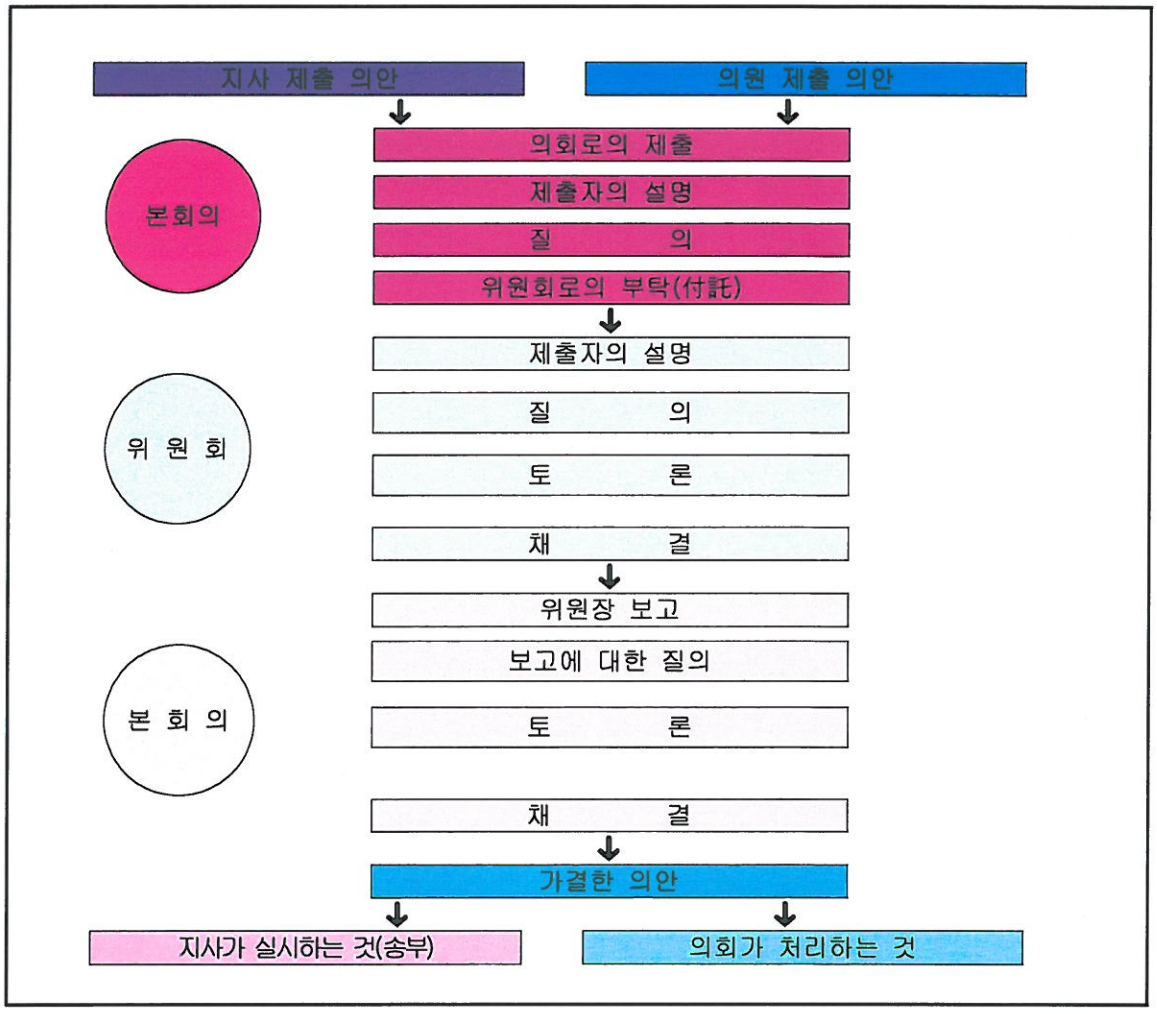
○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소관 업무 사항
석탄산지진흥 에너지문제조사	석탄광업 안정화 · 석탄산지의 산업 · 생활기반 정비 등 지역진흥정책 추진
	에너지 효율 증대 촉진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 이용 촉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 원자력 안전대책
북방영토대책	북방영토 복귀 촉진 · 북방영토 주변에 대한 어업 안전 조업
	북방영토 원주민에 대한 원조 대책
신칸센종합교통 대책	신칸센 건설 촉진 · 고속 교통 체계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정비 촉진
도 · 주 지방분권 개혁등추진조사	도주제(道州制)특구 · 시정촌(市町村) 합병 · 광역 연계
	시정촌 등의 사무 · 권한 이양 · 지청제도(支庁制度) 개혁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촉진 · 양육 자립 지원 · 양육 환경 정비
	고령화대책 추진 · 간호 보험 사업
식문화 및 관광대책	관광진흥대책 종합 기획 · 정리 · 식문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전략추진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제 정비
	지역 환경 등을 활용한 체험형관광 추진
	안전한 식품 생산 · 공급 ·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 보전
예 결 산	예산 : 매 정례회 별로 실시, 분과회를 통해 예산 관련 의안 심사
	결산 : 제3회 정례회에 실시, 분과회를 통해 결산 인정 의안 심사

○ 도의회 업무

- 의안의 의결 : 의원이나 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함
- 의회에 제출되는 주요의안 : 예산, 조례, 인사, 의견·결의서, 도정 조사와 검사, 청원·진정의 심사

○ 의안심의 절차



【 홋카이도 지방자치제 및 의회 역사 】

○ 메이지 중기부터 북해도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의회 개설을 희망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1901년 3월 '홋카이도회법'과 '홋카이도 지방비법'이 공포되고 홋카이도 의회의 전신인 홋카이도회가 설치됨

○ 1901년 8월 10일 홋카이도회 의원 선거가 이뤄졌으며 다시 유권자 수는 12,635명, 의원수 35명 임기 3년 체제였으며, 10월 21일 첫 회의가 개최됨

○ 전후 1946년 지자체 제도의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홋카이도회법'과 '홋카이도 지방비법'이 폐지되었고, 이전 '부현제(府縣制)'는 '도도부현(道府縣制)'제로 변경됨. 1947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어 홋카이도회는 홋카이도 의회로 개정되었으며, 의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위원회 제도가 설치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 2001년 10월 12일, 21세기의 개막을 맞음과 동시에 홋카이도 의회 개설 10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이 치루어 짐

▣ 주요 질의 답변

○ 홋카이도의 농업은 지역 산업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지?

☞ 북해도는 일본 전국의 1/4에 달하는 경지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형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농업을 추진하여 일본 전국의 약 12%를 점하고 있음. 특히 북해도 농산물 공급률은 약 20% 이상으로 농가소득이 타도 및 타현 대비 약 4배 가량으로 주업농가가 대부분임.

○ 농촌 고령화 문제로 인력난이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일본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농업을 계승할 수 있는 후계

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약 70% 가량의 후계자를 확보하여 어느 정도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음. 현재 북해도 도청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농업 후계자 육성 및 확보, 친환경 농업 장려 분야 사업임.

○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농업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북해도에서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 및 생산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검사 기준을 통하면 북해도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에도 농협이라는 조직이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 호쿠렌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북해도에는 북해도 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북해도 호쿠렌이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쿠렌의 주요역할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농가 자재 공급, 농업 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음. 또한 호쿠렌은 경제, 신용, 공제사업을 하고 있어 기능이 거의 한국의 농협과 유사함.

○ 북해도 축산업 현황과 전망은 어떤지?

☞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종래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인텔리전트 축사 구축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확충,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농장들의 사료 소비량, 축분 발생량, 액비 생산량 등을 관리하여 환경오염에도 동시에 대응하고 있음.

▣ 시 사 점

○ 북해도는 농가 조직과 지역농협, 호쿠렌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지의 농산물별 전문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이를 호쿠렌에서 조직적으로 연계함에 따라 유통 및 공동마케팅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어 지역의 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농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후계자 육성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후계자 육성에 앞서 농가 규모, 소득, 나이, 면적, 작물종류 등에 농가 성격에 대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계자 양성과 고령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일본은 친환경 농업 인증제를 추진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 안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추진목적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동시에 고려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인식이 선행되고 있음.

○ 축산의 경우는 소득창출에 앞서 무엇보다 자원순환형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 및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첨단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형태로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북해도 구도청사 견학</td><td>북해도의회 견학</td></tr>
<tr><td></td><td></td></tr>
<tr><td>북해도청 견학</td><td>의회 현황 청취</td></tr>
<tr><td></td><td></td></tr>
<tr><td>내부시설 견학</td><td>기념촬영</td></tr>
</table>

3 야마모토 관광과수원(山本観光果樹園)

▣ 방문목적

○ 최근 농업 6차산업화에 맞춰 농산물 직매장과 체험농장,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으로 농산물 생산부터, 관광, 서비스 산업 까지 연계하는 형태가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

○ 일본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모델인 체험 관광농원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관련 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 방문개요

○ 일　시 : 9. 23(금) 오후 14:30

○ 안내자 : 대표자 山本 幸章(YAMAMOTO YUKIAKI, 야마모토 유키아키)

○ 주　소 : 北海道余市町登町1102-5
(홋카이도 요이치마치 노보리쪼 1102-5)

○ 홈페이지 : http://www.fruits-yamamoto.net/index.html

○ 주요내용 : 과수원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농원 견학, 자료수집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야마모토 관광과수농원 현황】



○ 유기 퇴비를 실천하고 있는 농원으로 봄부터 늦가을까지 여러 과일 따기를 즐길 수 있는 과수원이며 5월~6월 딸기, 6월~8월 앵두, 7월~9월 플럼(서양 자두), 8월~9월 복숭아, 9월~11월 포도와 사과, 9월~10월 배, 서양배, 프룬 · 7~8월의 블루베리, 10월~11월 호두, 9월~10월 밤 등, 시즌마다 작물이 바뀌는 것이 특징임

○ 원내에서는, 수확 체험 뿐만 아니라, 레스트 하우스에서 징기스칸 요리와 철판구이의 식사, 애플 파이 등을 즐기는 것도 가능. 과수원에서는, 채집한 과일을 딸기 잼과 사과 주스로 가공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 야마모토 관광과수원은 홋카이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웹 사이트에서도 영어, 태국어, 중국어 안내를 게시하고 있음.

○ 북해도에서 재배가능한 모든 과수를 유기비료만을 사용하여 재배하며 직판장 운영, 온라인 주문판매, 체험서비스, 가공 판매 등 생산부터 판매, 체험까지 운영방식을 다각화함.

○ 홋카이도에서 재배가 가능한 과수의 대부분을 이 농장에서 재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한겨울을 제외한 1년 내내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객 또한 끊이지 않고 방문함.

【일본의 과수산업 현황】

○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후지품종이 총 생산량의 53%, 쓰가루 11%, 오린 7.6%, 조나골드 6.9% 등 87품종의 사과가 재배되고 있으며, 배는 갈색배 48.5%, 녹색배 50.5%, 서양배 80.4% 등 총 68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복숭아, 감귤, 딸기, 수박, 바나나, 배, 단감, 오렌지, 참외 순으로 선호 과일에 대한 선택 이유가 주로 건강 기능성과 색, 향, 모양, 취급 간편성 등이 주요 사유였음. 또한 수입 과일의 경우 맛과 건강기능성 때문에 키위, 자몽, 블루베리를, 취급 간편성 때문에 바나나, 체리 등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질의 답변

○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과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 국가의 이민 정책으로 조상이 북해도에 정착한 이래 대대로 약 150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수만을 재배한지는 120년이 되었으며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 지속적으로 관광 과수농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 1년 방문객은 얼마나 되며 매출은 어느 정도 인지?

☞ 작년 1년 동안 다녀간 관광객이 5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만, 홍콩, 태국 등 만 2만 2천명의 외국 관광객이 다녀갔음. 비슷한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한국보다는 주로 그 나라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 과수를 체험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방문객이 드물고 대만, 홍콩, 태국 등지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과수산업을 비교한다면?

☞ 2007년 10a기준 사과 생산단계 노동시간에 일본이 평균 272시간을 소요했지만 한국은 150시간을, 배 작업에는 일본이 366시간, 한국이 176시간을 소요하여 현재 과수재배 방식은 한국이 더 선진화 되어 있음

▣ 시 사 점

○ 과일의 특정품종이 과수시장을 과점유 하고 있어 몇 개의 과일이 국내 과수시장 및 산업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품종 다양화로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고 맛 중심의 품질 기준을 정착시켜야 하며 지역별 특화 품종 정착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야 함.

○ 한국배의 수출시장이 미국과 대만으로 제한되는 큰 이유는 수출단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며 또한 수출시장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교포시장 중심의 소비수요에 맞추고 있기 때문임.

○ 과일시장에서 수집한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일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수입산 과일의 선호 이유를 분석하여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실 생산과 품질 고급화 재배 방식을 도입해야 함 .

○ 과수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각종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률이 높아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병해충 발생 정보를 전국으로 예측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 및 방제 매뉴얼을 보급하여 농가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산 과실은 수확의 적기를 판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수확하는 관리시스템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품질 균일화를 이루었고 이에 한국산보다 미국, 대만 등에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어 한국도 과수 재배단지도 과학적인 관리시스템과 균일한 선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td><td>
</td></tr>
<tr><td>농장 건물 전경</td><td>농장 현황 청취</td></tr>
<tr><td>
</td><td></td></tr>
<tr><td>농장 견학</td><td>사과따기 체험</td></tr>
<tr><td></td><td></td></tr>
<tr><td>판매장 현황</td><td>내부견학</td></tr>
</table>

④ 팜 도미타(ファーム富田, FARM TOMITA)

▣ 방문목적

○ 일본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모델인 체험 관광농원을 우리 도에 응용, 도입하기 위해 관련 농원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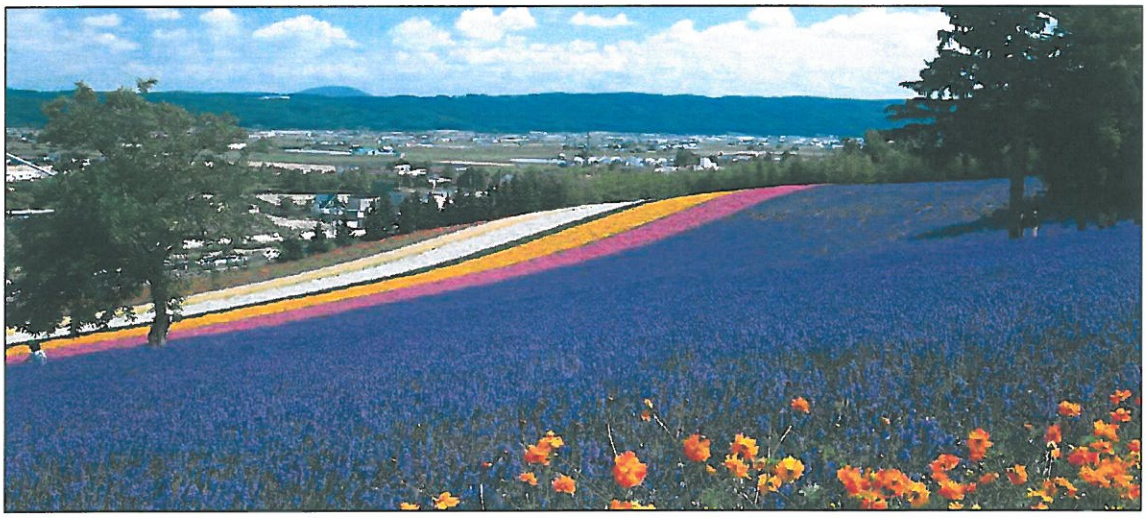
▣ 방문개요

○ 일 시 : 9. 24(토) 오전 10:30
○ 면담자 : 전무이사 原田 健一(HRADA KENICHI, 하라다 케니치)
○ 주 소 : 北海道空知郡中富良野町基線北15号
(홋카이도 소라치 군 나카 후라노 정)
○ 홈페이지 : http://www.farm-tomita.co.jp
○ 방문내용 : 팜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농원 견학, 자료수집

▣ 방문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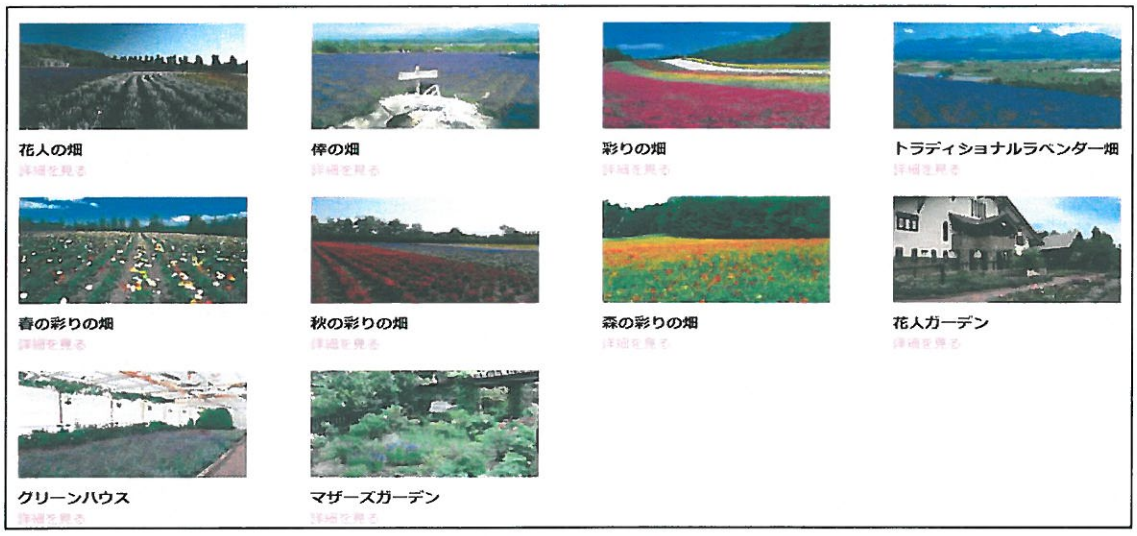
【 도미타팜 회사 개요】

○ 라벤다 관광농원으로 재배에서 직접 수확한 라벤더를 이용하여 상품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농촌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에코 투어리즘)으로 발전시킨 성공사례



설 립	1983 년 10 월 31 일 (1983 년)
자본금	1,500 만엔 (팜 도미타 그룹)
대표자	도미타 히토시
종업원수	정사원 수 41 명 (여름 파트 타임 110 명)
사업 내용	라벤더를 중심으로 한 화훼 나물 재배, 가공, 판매
	향장품의 제조·판매·기획
	향장품 관계의 연구·개발
	향기에 관한 강습회·강좌·세미나 개최
관련 회사	주)토미계획 (1988년 7월 설립)
	유)시닉명소 (2006년 3월 설립)
주요 제품	라벤더 오일 향수 라벤더 허브 비누 라벤더 버스 라벤더
	라벤더 사시 라벤더 티 라벤더 드라이 플라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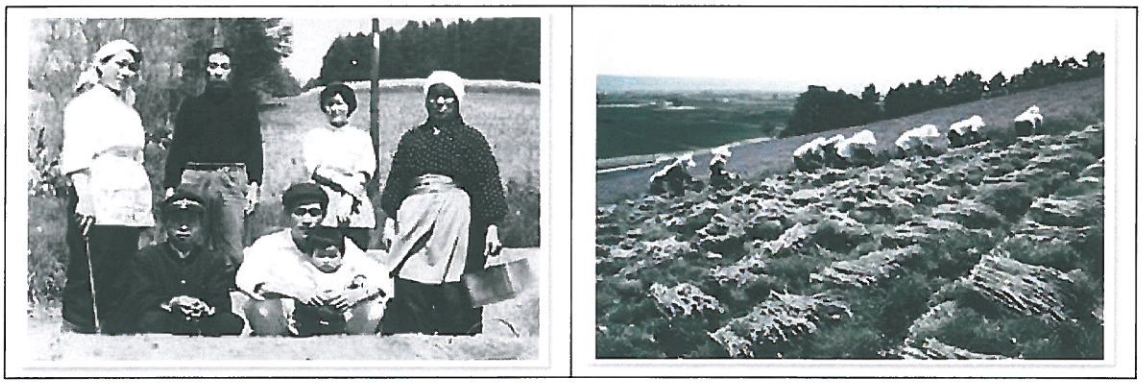
○ 주요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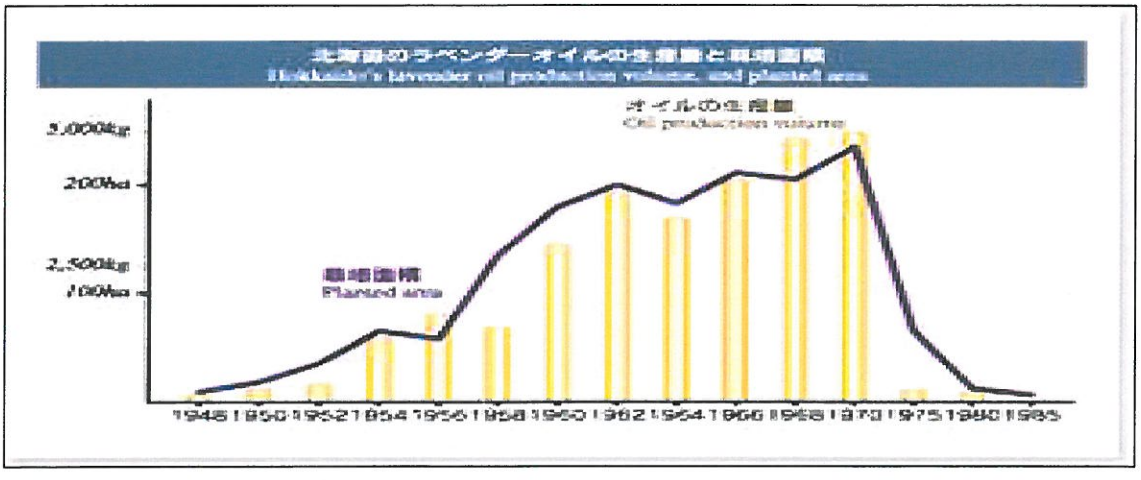
【 도미타팜의 역사】

- 1897년(메이지30년) : 홋카이도 국유 미 개간 처분 법」제정 이후 홋카이도의 이민자 급증
- 1903년(메이지36년) : 초대 토미 도쿠 마 (타다오의 할아버지)가 나카 후라노 벌판에 경작

- 1906년(메이지39년) : 토미타 노리오(타다오의 아버지) 탄생
- 1932년(1932년) : 도미타 다다오가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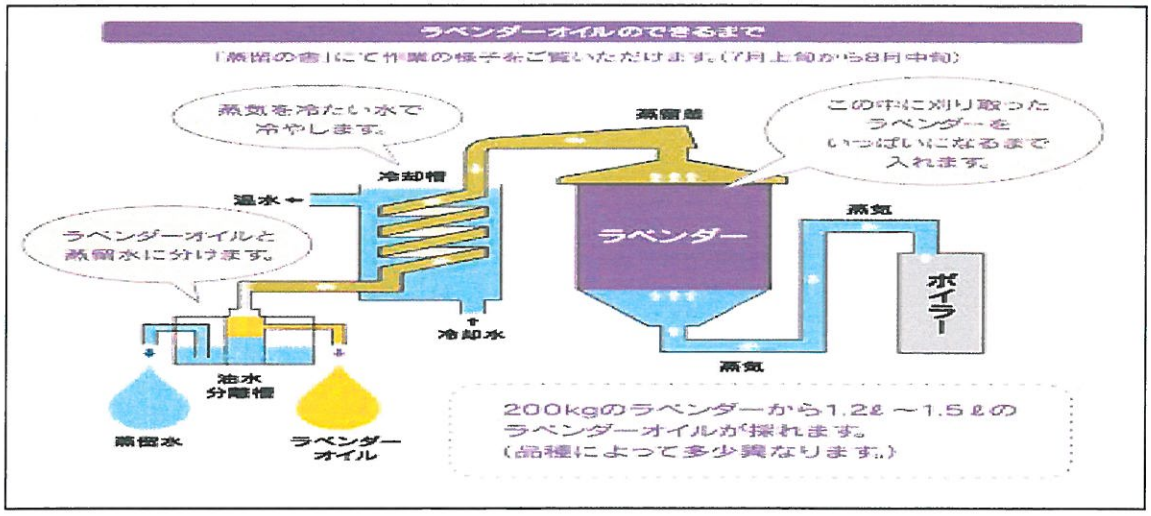
- 1937년(쇼와 12년) : 曾田香料의 창시자 소다 정치씨가 화장품의 원료로 프랑스에서 라벤더 씨앗 5kg를 입수. 그 후 일본 각지에서 시험 재배가 이루어짐
- 1952년 : 나카 후라노 라벤더 재배 시작
- 1965년 : 라벤더 밭을 7년간 1.2ha까지 확장
- 1970년 : 라벤더 재배가 피크를 맞이하여 후라노 지방 전체에서 230ha이상, 약 250호의 농가가 라벤더 재배함. 홋카이도 전체(대부분이 후라노 지방)의 라벤더 오일 생산량은 5t을 기록
- 1972년 : 합성향료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무역 자유화에 의한 저렴한 수입 향료의 대두로 향료 회사의 라벤더 오일의 구입 가격이 내려가고 라벤더 농가에 타격을 줌(오일 생산량 참조)



- 1976년 : 라벤더 밭이 국철의 달력에 의해 전국에 소개되어 점차 관광객들이 방문이 증가함

- 1990년 : 프랑스 남부의 라벤더 생산자 조직에서 라벤더 재배의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칭호 「오토 프로방스 라벤더 수도 기사"를 수여받게 됨. 동시에 개최 된 라벤더 오일 품평회에서 팜 도미타의 에센셜 오일 "오카무라 사키」가 제 1 위를 차지함

【라벤타 오일 채취방법】



○ 라벤더는 원래 향료가 되는 에센셜 오일을 얻기 위하여 재배가 시작된 식물로서 후라노 지방에는 여러 증류 공장이 있었으나 합성 향료의 대두로 인해 라벤더와 함께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림

○ 팜 도미타는 1980년에 독자적으로 라벤더의 증류를 재개하여 1개월 정도에서 절정을 마치고 버리는 라벤더를 오일로 추출함으로써 그 향기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함

○ 팜 도미타에서는 라벤더의 증류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수증기 증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마솥에 담은 라벤더 증기 통해 오일 성분을 휘발시키고 휘발성 오일 성분은 라벤더 속을 통과한 증기와 함께 냉각조에서 식힌 증류수와 혼합 된 상태로 나옴. 그것을 기름 물 분리조에서 기름과 증류수로 분리함

▣ 주요 질의 답변

○ 연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연간 입장객 120만명으로 7월에 70만명, 8월에 30만명, 기타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음.

○ 도미타 농장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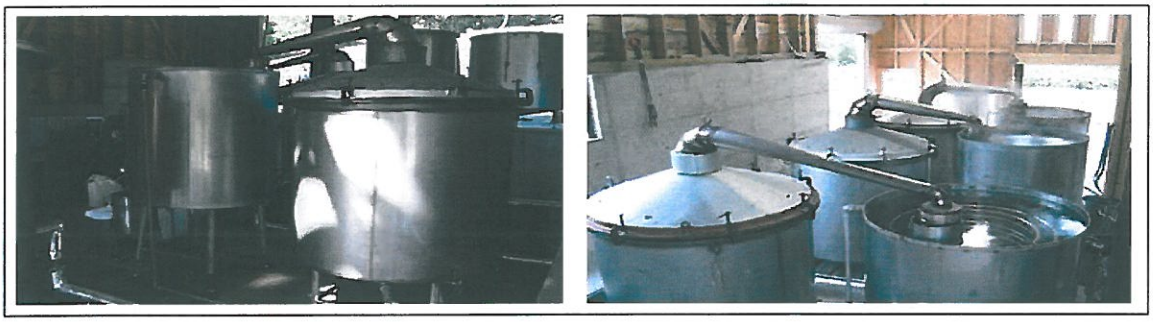
☞ 정식 직원 30여명 정도이며, 가장 바쁜 시기인 7월에는 임시직원까지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음. 농장의 매출은 약 방문객 1인당 만원 추정되며 농장이 도시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후라노의 주변 상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농가에 소득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라벤다에서 오일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 라벤더의 종류 등에 따라 채취 오일의 양은 다소 다르지만 1kg의 라벤더에서 6~8ml로 한 주의 라벤더에서 1.2~1.5ml 밖에 얻을 수 없음

○ 라벤다 오일을 만드는 증류시설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 증류 시설로는 팜 도미타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한 60kg의 라벤더가 들어가는 작은 솥을 가진 증류기가 1개, 200kg의 라벤더가 들어가는 큰 솥을 가진 증류기가 3개 있으며 200kg의 증류기는 예전 후라노 지방에서 라벤더 재배가 번성했던 시절 증류기를 2004년에 복원한 것으로, 2006년에 증류시설을 증축하여 2기를 증설한 것임



▣ 시 사 점

○ 도미타 팜은 산 지형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라벤다 및 다양한 허브 작품을 재배 생산하여 농장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체험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농장에서 생산된 라벤다와 허브를 활용한 화장수, 오일, 추출물 등 향장품으로 가공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6차 산업 우수모델로 성장함

* 향장품 : 향료가 들어 있는 화장품.

○ 전라북도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성장 잠재성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와 수익성이 있는 향장품 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 유망산업을 발굴하여 기존 산업을 보완 대체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향장품 산업은 전라북도가 지닌 농산업 인프라, 자연환경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고 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천혜의 자연환경 : 전북은 1차 농산업이 주 산업이며 개발되지 않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 관광산업 연계 : 휴양과 관광이 결합한 브랜드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홍보, 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
- 바이오산업 연계 : 식품산업, 신약, 음료산업, 한방산업 기술개발 등으로 미래 유망산업 발굴 가능

▣ 방문기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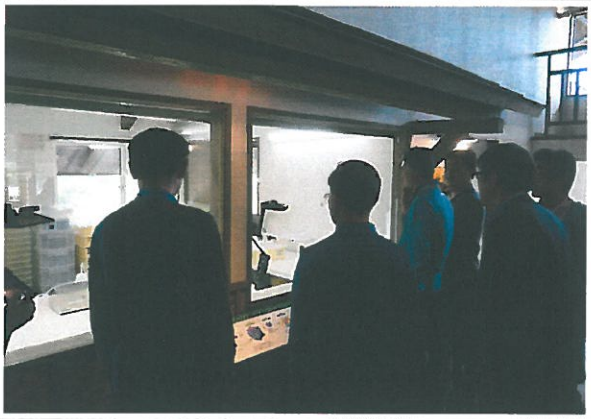
팜 도미타 전경



라벤다 농원 시찰



허브 온실 견학



라벤타 향수 제작과정 견학



기념사진



기념품 전달

5 팜 키토라(FARM KITORA)

▣ 방문목적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들이 생산방식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비율 증가함

○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자가생산, 유통시스템을 갖춰 소비지향의 유기농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사례 견학

▣ 방문개요

○ 일 시 : 9. 24(토) 15:00

○ 면담자 : 대표이사 記虎 悟(KITORA SATORU, 키토라 사토루)

○ 주 소 : 北海道夕張郡長沼町東3線北9番地
(홋카이도 유바리군 나가누마쪼 히가시3센키타9반찌)

○ 홈페이지 : http://www.farm-kitora.com

○ 주요내용 :

- 시설 운영현황 청취 및 판매장, 가공시설 견학, 자료수집

▣ 방문기관 주요 내용

[팜 키토라 현황, 주요사업 설명]

○ 회사명 : 有限會社 ファームキトラ((유)팜 키토라)

○ 농장 규모 : 논농사를 포함해서 45ha 경작

○ 취급상품 : 홋카이도 산 쌀, 무 농약 쌀, 특별 재배 미, 무 농약 야채 등

- 취급 쌀 품종 : 유메피리카, 나나츠보시, 호시노유메, 혹쿠리코, 오보로즈키, 키타쿠린, 유키히카리, 아야히메

- 농법 : 오리 이용 유기농(무농약) 쌀재배, 기계제초 농법, EM 농법

* EM이란 : Effective micro organusms : 유용미생물농법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여러생물(광합성세균류, 유산균류, 효묘균류) 10종 80속을 복합시켜 배양한 정균, 발효, 항균, 합성 능력이 있는 미생물 재제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류큐대학(琉球大学) 농학부의 히가 테루오(比嘉 輝夫) 명예교수가 개발

○ 기타사업 : 딸기 따기 체험 관광농원, 야채 직매장 운영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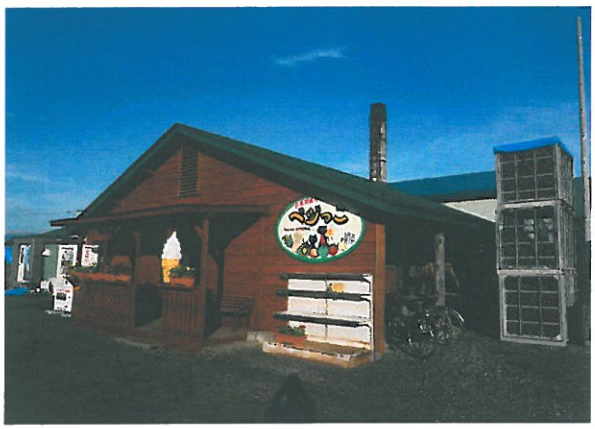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대량생산 중심의 재배방식과 달리 친환경 방식의 유기농업 재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세계 유기농 농산물 판매액의 90%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도 갈수록 식생활 고급화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기농식품 시장이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저농약, 무농약 재배 농산물을 유기농 재배 및 인증 농산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중국 고소득층의 유기농산물 소비 욕구에 대응하여 유기농식품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하지만 무농약인증 농산물 중심인 우리나라는 유기농식품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로의 전환은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시장의 형성 이후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방문기관 사진



팜키토라 야채직매장



시설 현황 청취



농산물 판매장 견학



보관 시설 견학



가공시설 견학



기념품 전달

6 미치노에키 쿄다(道の駅」許田)

▣ 방문목적

○ 지역 특색을 살린 도로휴게소 판매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 주민연대에 기여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 견학으로 현 전북의 농산물 직매장에 문제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방문개요

○ 일　시 : 9. 26(월) 오후 14:30

○ 면담자 : 얀바루 물산(주)「미치노에키」쿄다

- 대표이사 사장　城間　秀幸, (SHIROMA HIDEYUKI, 시로마 히데유키)
- 총무기획과 주임 (KUDAKA SHUHEI, 쿠다카 슈헤이)

○ 주　소 : 沖縄縣名護市許田17番地の1
(오키나와켄 나고시 쿄다 17반찌노1)

○ 홈페이지 : www.yanbaru-b.co.jp

○ 주요내용

- 휴게소 운영현황 청취 및 프로그램 견학, 자료수집
- 일본 농수산물 시장 동향과 정책지원, 유통망,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시스템 조사 견학

▣ 방문기관 주요 내용

[미치노에키 현황, 주요사업 설명]

○ 미치노에키(道の驛)란?

휴 게　기 능	도로 이용자를 위한 장소
정보발신 기능	도로 이용자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한 장소
지역 연대기능	미치노에키를 계기로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고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같이 하기 위한 장소

		
휴게소 · 화장실	도로정보 터미널	농산물 직매장

○ **회사 개요**

- 회 사 명 : 얀바루 물산 주식회사(제3섹터 법인)
- 대 표 자 : 히가 미키히로(比嘉幹弘)
- 설　　립 : 1992년 7월 29일
- 사업내용
  ① 특산품, 민예품, 공예품, 일용잡화의 판매
  ② 주류, 청량음료수, 기호음료의 제조판매
  ③ 도매, 소매 판매
  ④ 농산물 · 가공 및 판매
  ⑤ 토산품점, 레스토랑의 경영
  ⑥ 현 내외에의 물산전시회 출품
  ⑦ 티켓 등의 위탁 판매 및 복권, 우표, 수입인지의 판매
  ⑧ 통신 판매업무 등

○ 일본의 국도변에 자리 잡은 도로휴게소를 '미치노에키(道の驛)'라고 하며 각 지역의 미치노에키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농축수산물 등) 직매장과 문화공간 등을 연계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각각의 미치노에키가 다른 색깔과 모습을 띠고 있으며 특정 지역은 온천지역의 특색을 살려 숙박 및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온천시설로,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곳은 체험시설이나 캠프장을 설치 및 특화시켜 관광객 및 도로 통행객의 발길을 유도 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주로 민간 제3섹터 법인이 농민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 미치노에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주차장, 전화와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진흥 시설, 안내 시설 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음.

- 미치노에키는 노인, 장애인, 자녀 동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은 장애인을 배려한 가족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관광객은 미치노에키의 역장, 역무원에게서 친절한 도로 정보와 지역 정보를 항상 안내받을 수 있음.

○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출하해 판매하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가가 직접 값을 매김.

- 오이, 수박, 무, 배추, 메론, 녹차 등 생산자 마다 내놓은 농산물의 가격이나 양이 제각각이며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농민 등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직거래 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

[주요판매 물품 현황]

○ 농산물 및 특산물 직매장 운영

- 농가 직송으로 신선하고 높은 품질의 야채, 과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오키나와 전통 공예품도 판매하고 있어 지역방문객과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음.



오키나와 특산 「아와모리」 소주



오키나와 특산인 유리 공예품



해초 모즈쿠로 만든 우동



오키나와 문양의 티슈케이스

○ 지역 특유 맛을 느낄 수 있는 레스토랑 운영

- 오키나와지역 특유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옛날 고향의 맛」,「간단한 식사」,「여행 피로해소」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서비스가 제공됨.



스테이크 점



오키나와 SOUL FOOD



빵 공방

▣ 질의 답변내용

○ 일본의 직거래 판매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2009년 기준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산물 직매장 수는 약 17,000여개소 가 있으며, 전체 연간 판매금액은 8,800여 억에 이름. 운영주체별로 보면, 생산자(그룹)이 60%, 농협이 14%, 지자체나 제3섹터가 4% 등의 비율을 차지함. 비교적 규모화된 농산물직매장은 농협이나 지자체, 농업법인, 제3섹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치노에키는 제3섹터 운영 직매장임

○ 초기 설립 당시에 자본금은 얼마였는지?

☞ 6천만 엔으로 한국돈 약 6억에서 7억 정도로 예상됨

○ 총 종업원 수는 몇 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어느정도인?

☞ 종업원의 수는 2015년도 말 기준으로 41명이며, 총매출액 797,641,000엔이고 당기 순이익은 53,870,000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인터넷 쇼핑몰 판매량의 증가,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및 신선농산물 선호도 증가 때문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휴게소의 기능과 농산물 직매장 기능을 연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 모든 쇼핑몰의 입지조건은 교통이나 관광의 요충지가 비교적 성공 가능성 높고 지역관내 이외의 고객은 관광을 겸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역 문화관광과 농산물직매장을 연계한 판매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회사에서는 교통, 관광의 거점이며 요충지인 휴게소에 매장을 열게 되었음.

○ 일본에서 농산물 직매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 생산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스스로 가격 결정을 하게 하여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농가 교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매일 매일의 판매성과를 통해 시장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비가 절감되므로 식료품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 청과물 판매 및 유통 이외에도 다양한 농산물 2차 가공제품 판매, 농가 레스토랑 운영, 각종 이벤트 개최, 도농 교류회 개최, 지역 관광농원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시 사 점

○ 일본 농산물직매장은 일본식 로컬푸드 개념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함께 농산물직매장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관광의 요충지에 들어선 농산물직매장(미치노 에키)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받아 성공모델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도 교통요충지에 휴게기능과 지역주민 연계, 농산물 유통 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활성화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농림수산성 설문조사(2006년)에 따르면 소비자가 농산물직매장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농산물 구입가능' 이었던 만큼 일반 수퍼나 백화점과의 차이점을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신선함·안전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직거래 매장을 관리하여야 함.

○ 직매장의 입지조건은 교통이나 관광의 요충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요충지만을 선택할 게 아니라 소비자 및 관광객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농산물 직매장을 단순히 농축산물 판매의 장소로써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얼굴 있는 농산물'이란 점을 활용하여 지역농업활성화와 도농교류라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농민의 만남의 장소 또는 다른 농촌마을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 농촌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문기관 사진



미치노에키 건물



미치노에키 대표 면담



농산물 전시장 견학



농산물 직매장 체험



농산물 직매장 체험



농가 레스토랑 체험

7 우미부도(바다포도)양식장, 우민치(海人道)

▣ 방문목적

○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환경에서 바다 및 수산물을 활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킨 우수사례를 견학 및 체험하고 전북도의 해양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

▣ 방문개요

○ 방문일정 : 9. 27(화) 오전 09:30

○ 면담자 : 식재사업부 山城 由希(YAMASHIRO YUKI, 야마시로 유키)

○ 주 소 : 沖縄縣糸滿市眞榮里1931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에자토 1931)

○ 홈페이지 : http://www.uminchi.com/

○ 주요내용

- 양식장 운영현황 청취 및 특산물 시식, 체험 프로그램 견학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우미부도 란】



○ 우미부도란 : 학명은 '쿠비레즈타'이며 오키나와의 명물 해초로 유명한 우미부도는 '바다의 캐비어'라고도 불림. 투명한 녹색 방울이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입맛을 돋궈주고 저칼로

리에 미네랄이 풍부하여 바다의 장수초라고 불림. 해산물 요리와 궁합이 좋아 생선회에 많이 곁들이며 식초와 간장을 뿌려 먹거나 샐러드와 국수에도 이용됨.

○ 일본 오키나와 본토의 최남단 마을인 이토만에서 바다를 이용하여 양식으로 재배되며, 그린캐비어라고 불리우는 '바다의 보석'임.

【 우미부도 양식장 설명】

○ 회사명 : (株)日本バイオテック, ㈜ 일본 바이오테크

○ 농원이름 : 우민치, 「海ん道」, UMINCHI란 바다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의미

○ 설립 : 1985년 12월

○ 대표이사 사장 : 山城 幸松(Yamashiro Yukimatsu)

○ 자본금 : 1,000만엔

○ 본사 : 沖縄縣糸滿市眞榮里1931(1931, Maezato, Itoman-city, Okinawa)

○ 사업내용 : 우미부도 양식, 오키나와 식자재 판매

- 양식장으로부터 갓 딴 신선한 우미부도를 활용하여 아이스나친스코(오키나와 명과) 등의 지역특산품을 가공, 판매하는 UMINCHI SHOP을 운영하고 있음

		
해변 체험장	체험 교실 프로그램	UMINCHI SHOP

- 우미부도 농원, UMINCHI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과 텃밭, 자연해안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교육

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우미부도 양식장 견학 및 따기 체험
- 바다 소금 만들기 체험(선물 소금 포함)
- 사탕수수 수확 체험 및 사탕수수 주스 짜기 체험
- 모닝 비치 요가
- 걸어 갈 수 있는 무인도로의 씨 워커

【일본 수산자원 및 수산업 현황 설명】

○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형적인 이유로 전통적인 어업국가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산물 수출국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타이완 등의 어업기술 향상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의 국제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음.

○ 하지만 일본 수산물 수요는 오히려 소득향상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세계 수산물 공급량 중 일본이 7.5%를 소비하고 있고 세계수산물 교역액 중에서는 8.3%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진도 9.0의 대지진으로 어선이나 양식시설 및 어민들의 사망과 실종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수산물 수출금액은 2007년 2,382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으며 2011년에는 1,741억엔까지 감소했음.

○ 일본 정부는 해양수산업 부양책으로 우선 2013년과 2014년에

수출대상국에 맞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대상국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홍콩과 대만 등 수출안정그룹과 EU, 러시아 등 성장그룹 등으로 분류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는 수산물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의 기준에 맞는 위생증명서 발급제를 도입하고 산지와의 연계 및 도매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일본 수산성은 수산물 안전강화를 위해 수출매뉴얼을 작성하고 수출대상국 안전 기준에 맞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취득과 지원체계를 정비·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시사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한국 수산물 소비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소비가 급감하였으며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한 업체가 수산물품질관리원 기준 2015년만 70여 곳이 적발되었음.

○ 원전사고로 인해 국내수산물 소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불법판매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국내 어업농가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어업의 존폐 위기까지 겪고 있음.

○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업농가들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 뿐만 아니라 고령 어업인이나 영세 어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함.

○ 일본은 수산물 수입국이자 소비가 많은 나라였지만 일본 대지진이후 침체된 수산업 분야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출대상국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안전기준 강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및 로고 도입 등을 추진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업 침체를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속도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한국도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수산양식 부문의 생산력 강화에만 집중된 상황이어서 수요의 한계가 있는 국내 소비시장에만 국한 될 것이라 아니라 수산물 수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국제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수산업 침체 현상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

▣ 방문기관 사진



우민치 건물



양식장 견학



우미부도 체험



체험 프로그램 견학



우민치 숙소 견학



기념사진

Ⅳ 연수후기

농업·농촌 자원 꿰기 + 농업·농촌 지키기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학 수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 끝자락에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배우러" 가야하는지 몇차례 논의 끝에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6차산업 성공모델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농촌관광과 6차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진 원동력이 무엇인가, 체험관광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론적 배경과 현장체험이 주요 타깃이었다. 의욕과 열정이 앞서 모든 대상지를 다 둘러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5박6일의 짧은 일정에 엑기스만 고르고 골랐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일본의 최북과 최남을 다니며 일본 전체를 다 둘러보는 양, 기대와 설렘을 가득 싣고 비행기에 올랐다. 일본의 성공모델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농촌의 활력을 찾기 위한 첫 출발이다.



신치토세공항, 환하게 웃는 도라이몽을 보니 일본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난다. 북해도의 교통, 행정, 경제의 중심도시인 삿포로, 계획도시인 만큼 바둑판처럼 뻗은 도로에 깨끗한 주변환경, 피부에 와 닿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부터 이번 연수의 성공을 예견하는 듯하다.

첫 방문지 삿포로 중앙도매시장, 매일 아침 홋카이도 각지에서 수확한 야채, 과일 그리고 방금 잡은 수산물이 다 모이는 총 집결지다. 새벽 3시부터 각종 농수산물이 모이기 시작해서 5시부터 경매가 시작되는지라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농산물을 옮기는 전동차로 분주했다. 농산물은 출하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올림경매 방식의 수지경매로 진행한다.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경매가가 즉시 공개되고 판매대금이 일주일내에 생산자에게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2007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배송장 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내의 모든 전동차와 지게차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홋카이도에서 재배 가능한 과수가 다 모여있다는 야마모토 관광수 농원은 146년째 이어온 경영체이다. 관광농원 체험과 농산물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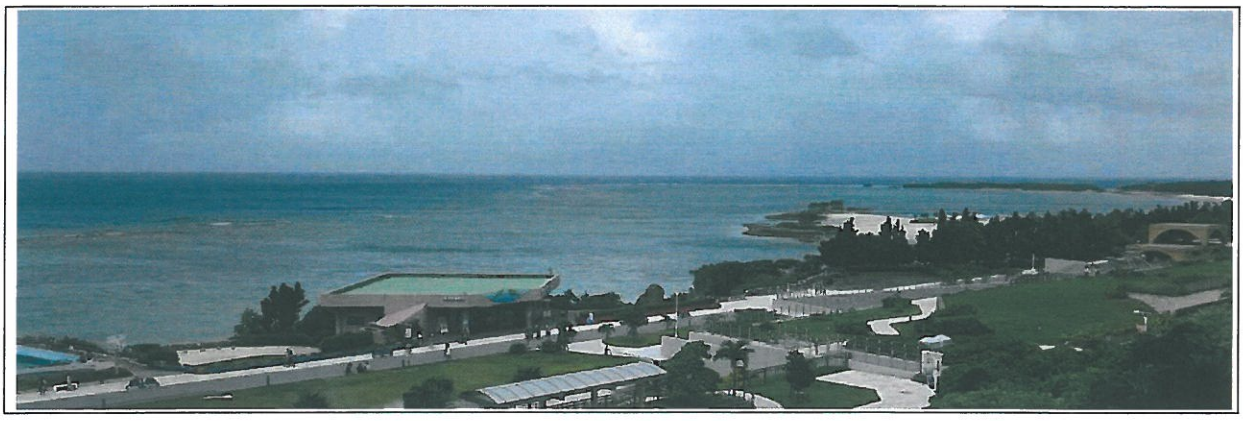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로 출하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일반 체험농장과 비슷한 분위기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후계농이 부족해서 주식 형태로 땅을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라벤다에 대한 한 농부의 열정으로 해마다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매출액이 8억 엔에 이르는 북해도 최고의 관광농원 팜도미타,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라벤다 꽃밭에 은은한 꽃향기가 오감만족이다. 무료입장으로 누구나 라벤더를 즐길 수 있고 향수를 제조해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욕심 낼만한 곳이다. 팜 도미타에 견줄만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농업자원에 관광, 바이오산업만 제대로 엮어진다면 충분히 전라북도 6차 산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삿포로에서 3시간 40분을 날아 도착한 오키나와, “오하요우” 보다 “하이샤이” 라는 인사를 더 반가워한다. 버스로 이동하는 중 “지신데스”, “지신데스” 하는 경보음이 울렸는데 현지인인 버스 기사는 별 요동이 없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오키나와 인근에서 최대 진도 5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현지인들의 태연한 반응에 다소 놀라웠다.



한국의 로컬푸드 매장과 비슷한 일본 농산물직매장인 미치노에키를 방문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각종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농촌 주민연대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공간이다. 일본내에서도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농산물” 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판매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대부분이 일본 사례를 모델로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농업이 있기까지는 몇 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선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땀방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 내내 우리도 이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6차 산업으로 잘 꿰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거기에 묵묵히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겠다는 뚝심만 좀 더 가진다면....